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1>

화엄삼매

보현보살은 백가지 삼매를 설하면서 보살이 갖가지 삼매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든 법계에 가득 찬 삼매의 신통변화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설하고 난 후, 삼매에 들어간 보살들의 경계를 자세히 설하고 있다.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화하고 조복시켜 여러 중생에게 편안한 곳을 나타내었느니라. (중략)

널리 부처님을 뵈는 마음은 싫어할 줄 모르고, 부처님 법신은 이미 자유자재하며, 교화할 중생을 따라 몸을 나타내니 한 몸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하였느니라. (중략)

“그 보살들은 모두 큰 지혜와 신통을 구족했으니, 밝고 예리함이 자유자재하여 여러 지위에 머물며, 광대한 지혜로 모든 것을 두루 보고, 모든 지혜의 성품으로 났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항상 앞에 나타나서 어리석은 가림을 떠난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었느니라

여러 중생을 다스리는 스승이 되어 부처님처럼 평등하게 머무르며, 모든 법에 분별이 없으며, 경계를 분명히 통달하여 세간의 성품이 고요하여 의지한 데 없음을 알고, 모든 부처의 국토에 두루 나아가지만 집착이 없으며, 모든 법을 관찰하나 머무름이 없고, 모든 묘한 법의 공전에 두루 들어가나 오는 바가 없으며, 모든 세간을

이 보살들이 부사의 법의 광명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불가설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큰 신통변화로 장엄한 구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삼매에 들어간 보살들의 경계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법계품

에서는 부처님의 경계를 보살들의 다양한 삼매로써 나타내는 데 커다란 특색이 있다. 언설로써 설명할 수 없고 생각으로도 미칠 수 없는 부처님 깨달음의 경계를 보살의 삼매로써 증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의 비로자나부처님은 법을 깨달아 그것과 하나가 되어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시방세계에 편안하면서 본원력(本願力)으로 끊임없이 광명을 발하며 활동하시는 부처님이다. 이러한 부처님을 근거로 해서 화엄의 보살도가 시작된다. 화엄삼매(華嚴三昧)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가능하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한의 절대적

삼매는 진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서 부처님을 보고 만나서 부처님의 경지에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 십지품에는 ‘보살은 하나의 삼매를 증득해서 한 부처님을 보고, 일천의 삼매를 증득해서 일천의 부처님을 본다.’ 고 하고있고, 십정품에서도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을 뵈고 법문을 들으며, 삼매에서 일어나서도 잘 기억하여 그 법문으로 도량에 모인 대중들을 깨우쳐 주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한다’ 고 설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상을 삼매라고 하는 종교체험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세계를 벗어나 따로 존재하는 어떠한 세계가 아니며, 부처님들만이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한없이 지혜롭고 자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실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나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우리들이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공덕을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덕을 실현하려고 하는 삼매의 마음과 노력이 있다면, 하나 하나의 삼매가 그대로 부처님의 생명을 자신에게 꽃피워내는 화엄삼매의 삶이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물질의 구성

부처님께서 대각을 얻으신 직후, 첫 교리를 설하신 것이 사성제(四聖諦)다. 제1성제 고제에서 인간의 삶은 괴로움(苦)이라 하였고, 제2성제 집제(集諦)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다르니 집착이라고 했다. 부처님은 모든 사물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살피지 볼 수 있었으나 중생은 사물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즉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겉모습에 그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체(二諦)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

으로 살펴보자. 1900년 12월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빛은 에너지 알갱이 즉, 빛의 양자(量子)가 띄엄띄엄 전달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빛은 파동이라는 설이 인정되고 있었던 때라 빛이 입자로 전달된다는 발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電子)가 또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전자의 이상한 성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밝혀낸 학문이 바로 양자물리학이다. 결국 전자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하이젠

모든 사물의 근본은 공

장기에도 양자장 존재

든 사물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상보적으로 구성돼 있다. 양자장 이론이란 전자, 양성자, 중성자 및 광자 등과 같은 소립자는 동전과 같이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자는 앞면에 해당되고, 파동은 뒷면에 해당된다는 이론이다.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흔히 장(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자장, 양성자장, 중성자장, 광자장, 쿼크장, 원자장 및 분자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체를 구성하는 장기에도 장기장(場), 조직에는 조직장, 세포에는 세포장,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에는 분자장,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원자장,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및 쿼크 등에는 전자장 및 쿼크장 등이 있다.

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보어의 상보성 원리를 거쳐 오늘날 양자장(量子場)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양자장 이론이란 전자, 양성자, 중성자 및 광자 등과 같은 소립자는 동전과 같이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자는 앞면에 해당되고, 파동은 뒷면에 해당된다는 이론이다. 동전의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흔히 장(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전자장, 양성자장, 중성자장, 광자장, 쿼크장, 원자장 및 분자장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체를 구성하는 장기에도 장기장(場), 조직에는 조직장, 세포에는 세포장, 세포를 구성하는 분자에는 분자장,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원자장,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및 쿼크 등에는 전자장 및 쿼크장 등이 있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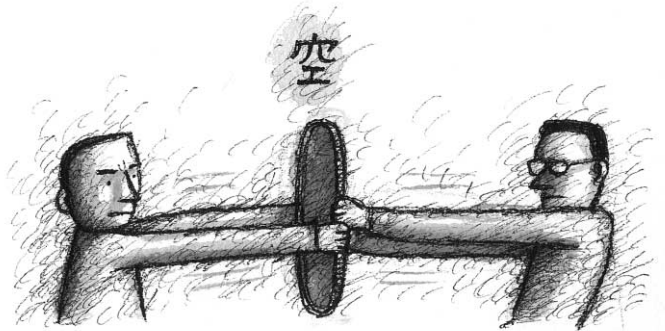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⑥

화엄의 교상판석

언어는 일반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기술하는 수단이다.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의미를 발생시킨다. 화엄에서 말하는 대상이란 사물의 본질로서 이치를 지시한다. 그럼으로써 교설 사이에 내재된 의미를 몇 가지의 단계로 구별하고, 사회적 관습과 같은 의미체계를 만든다. 이것을 교상판석(敎相判釋), 혹은 의리분제(義理分齊)라고 부른다. 교리의 이치를 판별하고 해석하여 화엄의 우위를 드러내는 방법론이다. 각 교설이 가지는 이치로서 대상을 분별하여 그것의 의미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분제(分齊)는 교설 상에 내재된 의리(義理)를 구별해 각자의 영역을 차별화시키는 작업이다. 차별이란 대상의 한계를 지어서 분별한다는 뜻으로, A는 A가 가리키는 이외의 대상의 배제를 의미한다.

엄격하게 배제한다. 이것이 언어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가리키는 대상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뜻에서 대상과의 상응관계를 전통적으로 대응이론이라 불렀고, 타자를 배제하는 작용

결과적으로 감춰버리고, 본래적인 진리를 체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자(無字) 화두의 경우를 보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주조스님은 없다고 했다. 왜 없다고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불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불성에 대한 ‘절대적인 있음’에 대한 연구(言句)가 아닌가? 아니면 세계에 대해서 ‘일없음’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사랑한다는 의미는 세계를 어떤 논리적인 개념으로 구성하여 이해하려

그러나 간화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세계 그 자체(法界緣起)를 경험하는 것(證悟)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사유(知解)로서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구제적이고 현실적인 효과(功能)가 없다. 구제적인 깨달음의 대상을 상징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마음이다. 이것을 대혜(大慧)는 ‘대오지심(待悟之心)’이라고 했고, 결국 인식의 주객으로 분리된 알아란 뜻에서 ‘지해지병(知解之病)’이라고도 했다. 보조는 이것을 정리하여 ‘십중선병(十種禪病)’ 혹은 ‘십중지해지병(十種知解之病)’이라고 했다.

화엄의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은 그것이 본체론(本體論)이든지, 이원론(二元論)이든지, 아니면 자체연기(自體緣起)라고 이해하든지, 역시 간화선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개념에 의한 이해로, 현실적인 작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바로 사구(死句)이다. 오히려 참된 법계연기를 인식하는데 장애가 된다. 거기에는 어로(語路)가 있고 의로(義路)가 있어서 처음 발심한 이들에게는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얽의 장애를 이룬다는 것이 보조 간화선의 입장이다.

■인경(禪堂담양연구원)

(02-733-5311, www.seonthery.org)

대상·의미에 갇히면 진리 못봐

을 ‘아포이론’이라고 불렀다. 중국의 종파 불교에서 소위 자신의 교설이 가지는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립된 교판론이란, 실제로는 교설 간의 차별성을 구별해내는 ‘의미체계’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화엄철학에서 채용된 이런 교판론을 보조는 간화선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비판한다. 왜냐하면 화엄의 가르침이 아무리 수승하다곤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얽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의미에

는 태도이다.

곧 ‘있다’와 ‘없다’는 개념(義)을 통해 그것에 대응하는 세계의 어떤 ‘실재(實)’로서 대상을 찾고 그림 그리려는 태도다. 이 습관화된 마음은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의식(意分)과 인식의 대상(相分)이 상호 작용해 특정한 어떤 세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구성력이다. 이것은 내면화된 사회적인 문법체계를 기초로 해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분별지(分別知)도 화엄의 의리분제(義理分齊)다.

불교예술대학 학생모집

천수바라춤과 공양무를 중심으로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본 불교예술대학은 김해강 캠퍼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모든 능력을 제자 전하스님께 전수하여 그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불교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배움에 힘쓰고자 하는 분은 함께 동참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우고 인간문화재의 후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약간명
- 교육기간 : 매 3개월 마다 한가지씩 수료함.
- 수업료 : 월 10만원
- 연락처 : 02)969-2410 / 02)969-4981

※ 김민아 교수님의 법무(法舞) 비디오테이프가 출판되어 있으니 구입코져 하시는 분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한국불교예술대학 학장 김해강

제3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무료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교리강좌(주1회)
 2. 의식과정(주2회) : 기본과정, 중급과정, 범음범패
- 모집인원 : 각 반 1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문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도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 法人 일승불교대학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이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절식요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터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기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고 간에는 지방이 영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임상 생활 중에 소리로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선천성 냉체 산후비량 낭습진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